

창세기(2)

창세기 1 장 1 절 5 절까지 한 음성으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에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두운 세상에 빛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과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죽은 영을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먹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하실 때만이 이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 장 7 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어두움이 깊음에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깊음에 대해 많이 찾아봤지요. 읍기와 베드로 후서도 찾아보고. 이 깊음이라는 거 그 깊음 안에 엄청난 물이 있다고 했지요. 이 땅에 있는 오대양 정도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엄청난 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욥기 37 장을 보니까 그것은 열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북쪽에 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죠. 그 깊음이 이 땅과 하늘의 보좌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좌를 보면서 심판 받는 것을 요한계시록 20 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땅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지요. 땅이 심판 받아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 장 3 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하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여기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원래 창조했던 하늘과 땅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범람해서 멸망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므로 1 장 1 절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1 장 2 절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한 심판 받은 땅입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의 하늘과 땅은 언제 생긴 것인지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처럼 어쩌면 수 억 년 전에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 절에 가보니 언젠가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땅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신 것이지 전체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겨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노아의 홍수로 풀게 되면 창세기 1 장 2 절에 있는 말씀 속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 장 13 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옛날 옛 세상이 물로 심판 받은 것처럼 불로 심판 받기 위해 간수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옛날에 물로 심판 받은 것도 가리고, 장차 불로 심판 받을 것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없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심이 확신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옛날 광야 시절 40 년

동안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자르고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심지어 주님께서 세우신 종마져 치려고 했던 자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확신이 있는 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주께서 주실 줄 알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이 주실 것을 알고 고난을 참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영광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앞으로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믿음이 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실의 뭔가를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현실의 실상이 아닙니다. 신명기 8 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만 믿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터득한 사람들은 손발이 다 잘리고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뜻을 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 장 3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겨나게도 하시는데 태어나게도 못하시겠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 장을 보겠습니다. 1 장 3 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듣고 입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구하고 전화를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요. 사탄은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느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비록 믿음이 없는 것 같이 흔들리고 혼동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뚝이가 넘어지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오뚝이 안에 들어 있는 무거운 금속 같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시편 119 편을 보게 되면,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는 사람은 거듭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빛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를 멀리하고 보기를 멀리하고 목상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왜, 말씀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 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 이후의 신약은 성령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에 의해 창조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 이전의 사람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의로워진 것은 상태가 변한 것이고 구원은 어디서 위치가 변화된 겁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삶 속에서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말 중에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사탄은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떤 13 세 소녀가 어릴 때 강간을 당해서 그냥 남자들이 미워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굴리다가

성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고 그랬네.’ 그러자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울부짖을 때, 목사님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그럼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소녀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럴 때 그 소녀의 병이 다 치료 받고 깨끗하게 나아서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인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감사하고자 한다면,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전체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창조된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 저 너머에 있는 엄청난 그러한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지요.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48 편 16 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이 지구를 비추는 빛은 해지만 원래 빛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야 영생합니다. 동식물들은 태양으로 빛만 받아도 그들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이 바로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빛이 나타난 것이 말씀으로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너머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문학자들이 아주 정교한 허블망원경을 가지고 북쪽 하늘을 계속 보는데 이들이 뭘 발견했느냐.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구멍 저 너머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그 빛과 태양을 비교해 보니까, 태양은 마치 커튼에 붙은 파리의 똥처럼 시커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태양이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코로나 섬광이 있습니다. 이 섬광이라는 건 온전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타면 섬광이 없습니다. 그냥 밝음 그 자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강합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빛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요한일서 1 장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발견하죠. 빛 가운데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참 빛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핵실험을 할 때 번쩍하는 섬광이 날 때 그곳에서 2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어도 눈이 먼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핵실험 하는 폭발력도 엄청난 빛인데 하나님 빛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 빛은 아무 것도 아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빛인 말씀,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바로 창조의 말씀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고 힘들고 캄캄한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빛을 창조하면서 밝히 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 것이고 우리 자신도 말씀처럼 변화되어 빛처럼 변화되어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빛이 왔으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이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믿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어둠의 사탄의 역사들이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